

중순경 이후 8월초까지 약세권 예상

난가고시제도가 정착되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7월이 되었으면 한다.

한동안 계란값 인상으로 고시가격이 잘 지켜지는 듯 하다가 5월 초순 이후 계란값 하락으로 5원~10원 까지 고시시세보다 낮은 2중, 3중 시세가 형성되었다.

하물며 생산자가 값을 내리는데 한몫을 하는 계기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감마저 보였다.

생산자가 고시한 가격을 생산자가 지킬 때 정착이 가능해지고 시세의 등락으로 생산조절 기능을 가질 때 난가도 안정될 것으로 확신이 든다.

□ 5월초 이후 계란값이 큰폭으로 떨어짐에 따라 노계출하 물량의 급격한 증가로 양계농가로 하여금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 계란값도 예상보다 큰폭으로 하락했다.

5월 산란사료 생산량을 보면 124,344 M/T으로 87년, 88년에 비해 1.4%, 8.7% 감소한 것만 보더라도

결코 생산과잉으로 보이지 않으며 6월 중순 이후 계란값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어 일시적인 소비부진과 높은 계란값의 영향인듯 싶다.

초생추사료 생산측면을 보면 5,553 M/T으로 전월대비 17%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비입추기를 맞아 자연감소로 보여지며 '87, '88년과 비교해 보면 13%, 27%의 증가추세를 보여 체란업계의 호황으로 입식열기가 높고 병아리값이 좋아 병아리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년들어 이와같이 큰폭의 병아리 생산수수가 많아 후반기 계란생산에 영향을 미쳐 계란값 변화에 작용하고 또한 산란종계 입식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7월의 계란값은 5, 6월 난가하락으로 노계출하가 많아 특란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부족현상을 보여 특란은 강세가 예상된다. 대란 이하는 금년 초에 입식된 계군의 산란율이 점점 좋아져 약세가 예상되며 특란과 대란 이하의 시세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6월 21일 계란값 인상 이후 노계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노계값이 100~200원정도 오른점으로 보아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계란소비의 감소가 예상되고 노사분규 등 사회분위기 침체가 겹쳐 중순 이후 약세권으로 돌아서는 '87년도 계란값 변동 추세와 비슷하게 나타날것 같다.

병아리값은 가을추 입추전까지는 약세권에서 머물다가 본격적인 가을추 입추기를 맞아 회복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량증추분양

봉래농장

(02)511-0038, (0417)63-8402

표 1. 산란용 P.S 입식현황

(단위 : 천수)

년도별\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비고
88	52.0	21.5	16.1	27.9	65.6	38.4	8.3	41.9	2.9	24.0	49.4	55.6	403.6	실제입추수수 (수입계포함)
89	88.5	40.1	23.5	37.2	63.1									89년 국내 P.S 생산계획량
89	45.3	31.8	28.7	68.6	49.4	25.4	25.8	17.0	21.5	16.5	27.8	50.8	408.6	

그림 1. 대란고시가격(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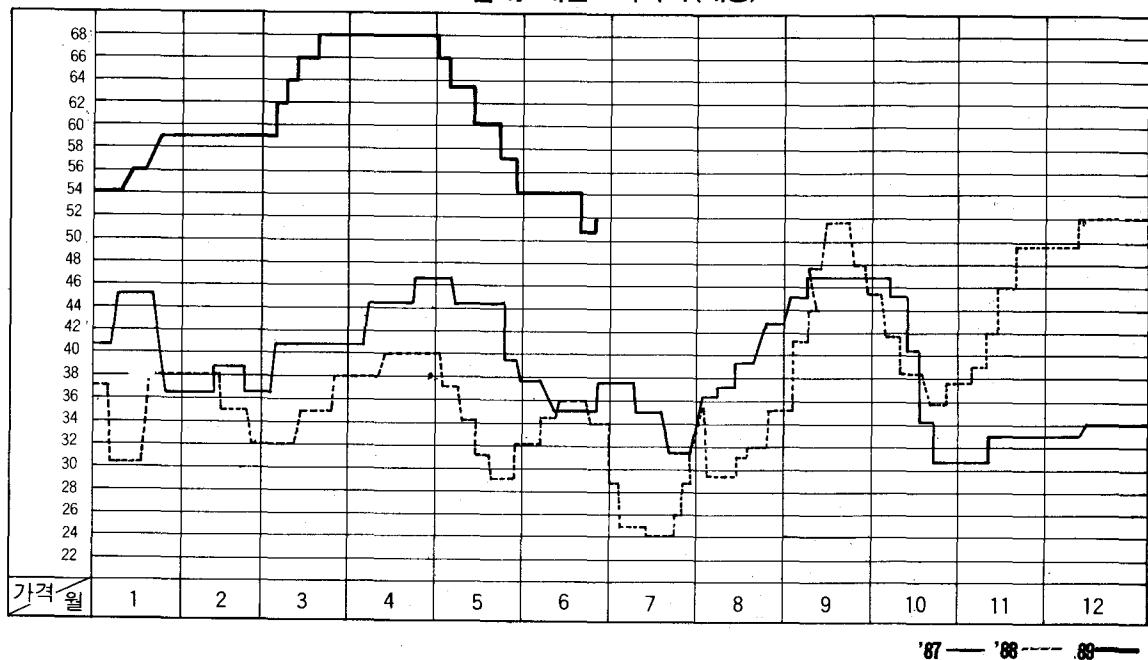


그림 2. 배합사료 생산실적

